## 횡성 쌀 '어사진미', 미국 동부 메릴랜드 향해 선적

횡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쌀인 '어사진미'가 미국 동부 시장 공략을 위해 2026년 첫 수출 선적길에 올랐다.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은 9일 오전 10시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한우로조곡8길 22)에서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쌀 어사진미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 물량은 총 19.7톤으로,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어사진미는 횡성군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해외 시장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어사진미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1회 쌀의 날' 기념행사에서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쌀임을 입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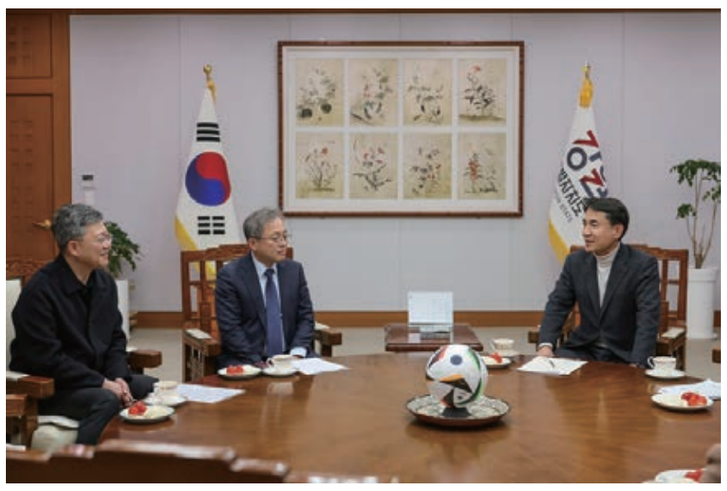
이러한 국내에서의 우수한 평가가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신뢰를 주며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횡성쌀의 해외 진출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군은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홍콩 등 세계 각지로 판로를 넓혀왔으며, 특히 2024년에는 미국 시장에만 총 98.8톤의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순길 농정과장은 "어사진미의 지속적인 수출은 횡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수출국 다변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여야 국회의원과 협력해 지역 핵심 현안 풀어

### 김진태 지사 "여야를 떠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9일(금)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박정하(국민의힘, 원주갑),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주을)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여야 초당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원주 지정 ▲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주 우선 유치에 대한 협조 ▲ 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 강원의료 AX 산업 전환 지원 ▲ 종축장 및 드림랜드 부지 개발 방식 재검토 ▲ 준보훈병원 유치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사업 전반이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춘천·원주·강릉 3대 거점 도시 간 연계 시너지가 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좌우하는 만큼, 교통 접근성과 특구 간 연계 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입지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 정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에도 반영돼 있는 사안으로,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가 5,8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강원의료 AX 산업과 관련해, 이번 국비에 반영된 10억 원의 기획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은 "원주의 현안은 강원도의 미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특히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략을 통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적극 공감하며, "이번에 논의된 현안들은 여야를 떠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라며, "국회의원,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원주가 강원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참가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에 대한 전 세계 탁구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말 기준 참가 현황에서 이미 시점 대비 목표치를 초과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80개국 2,150명이 참가를 확정했는데, 이는 당초 해당 시점 1,500명 수준을 예상했던 목표 대비 약 44%를 초과 달성한 결과다.

고무적인 것은 유럽의 독일이 283명으로 가까운 일본(221명)이나 개최국 한국(175명)보다 앞서는 등 참가 선수 지역 분포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까지 참가 신청 기간이 남은 만큼 세계 각국 동호인 선수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ITTF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강릉시가 국제 스포츠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생활체육 탁구축제다. 올해 강릉대회는 2026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아레나에서 열리며, 남녀 단·복식, 혼합복식 5개 종목이 연령별(5년 단위) 11개 세부 종별로 운영된다.

만 40세 이상(1986년생 이상) 동호인이라면 선수 출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gangneung2026.com)에서 가능하다.

## 평창송어축제 고향사랑 기부하고 평창 쌀 추가 받아

평창군은 1월 9일 개막하는 제17회 평창송어축제 기간에 현장 홍보부스에서 기부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평창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에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송어축제 체험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더불어 평창 쌀 2kg을 추가로 증정한다.

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평창송어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하여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송어축제체험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였으며, NH농협평창군지부와 '농심천심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창송어축제 매표소 앞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선착순으로 평창쌀 2kg 증정하며 물량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만큼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이 제공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평창송어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고 1석 3조의 혜택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홍천강 꽁꽁 축제 개막, 겨울 홍천이 즐거움으로 얼었다!

홍천강 꽁꽁 축제가 1월 9일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 일정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겨울철 대표 축제인 홍천강 꽁꽁 축제를 통해 홍천강 일원에서 얼음낚시와 겨울놀이 체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며 겨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홍천강 꽁꽁 축제는 꽁꽁 언 홍천강 위에서 즐기는 얼음낚시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겨울의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얼음낚시 체험을 비롯해 겨울 놀이 공간과 체험 행사, 먹거리 공간 등이 운영되며, 현장 곳곳에서는 방문객들의 웃음과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

홍천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 관리와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가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시 겨울, 역시 화천!" 2026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10일 개막, 23일 간의 여정 시작

### 새벽부터 차량 행렬, 주말 예약 낚시터 매진, 겨울축제 진수 만끽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일부터 인기몰이에 나섰다.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개막해 내달 1일까지, 23일 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축제 시작일인 10일, 통트기 전부터 화천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기 시작했다.

화천군청 축제 관련 부서 직원들과 (재)나라 임직원, 얼음판 관리 직원들은 새벽 4시부터 얼음판 천공, 교통안내, 각 부스 운영 상황 점검 등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낚시터 발권이 시작된 오전 8시부터 현장 낚시터와 예약 낚시터에는 삽시간에 대기행렬이 생겼다.

오전 8시30분 낚시터 입장이 시작되자,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사전에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얼음판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여기 저기서 산천어와의 만남에 즐거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관광객들은 1년 만에 다시 열린 겨울 왕국에서 세계적 겨울축제의 진수를 만끽하며, 가족과 친구, 연인 간의 추억을 한겹 한겹 쌓았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구이터와 회센터는 직접 잡은 산천어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실내얼음조각광장, 겨울문화촌,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홍보관, 조경철 천문대 홍보관, 산천어 커피 박물관 등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 10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2026 화천산천어축제 개막식에는 인기가수 백지영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서 화천읍 중앙로 시가지에서는 첫 선등거리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인기 가수 이하늘씨가 신나는 DJ 쇼를 진행한다.

(재)나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는 "무엇보다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화천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즐거운 겨울의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 고성 평화경제특구 행정지원 추진단(TF)

평화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1월 9일 '고성 평화경제특구 행정지원 추진단(TF)'을 설치하고, 평화경제특구 최초 지정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고성군은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공존의 생활공간이자 상생형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미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평화경제특구 지정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지정전략 수립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도로,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4곳 내외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6일 고시함에 따라, 고성군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전략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